

보도기획

시간강사, 임금은 '요지부동' 논의는 '지지부진'

이근한 기자 dlrmmsgks21@khu.ac.kr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비정규직 임금이 덩달아 오를 것이라는 노동부의 입장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시간강사 A씨는 '작년에 비해 16.4%로 상승한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이 우리 학교 시간강사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가?'라는 질문에 쓰쓸히 웃으며 답했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16년 대비 8.1%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전국 대학교 시간강사 임금 상승률은 5.4%였다. 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2014년 5,120원에서 2018년 7,530으로 5년 간 약 4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학교 시간강사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51,00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우리학교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평균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2011년 전국 평균이 우리학교는 44,000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2017년 전국 평균이 58,000원, 우리학교가 51,000원으로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사립대학만 놓고 보면 우리학교의 정체는 더욱 눈에 띈다. 2011년 사립대학 평균은 37,000원으로 우리학교 43,000원보다 낮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이는 좁혀졌다. 이윽고 2017년 사립대학 평균은 52,000원으로 우리학교와 1,000원이 차이난다.

A씨는 "박사학위를 받고 이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을 볼 때마다 비참하다"며 말을 이어갔다. "관례적으로 학교에서 1~2개의 수업을 맡을 수 있다"며 "세후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많아봤자 고작 150만 원이다"고 말했다. 시간강사는 강의가 있는 학기에만 일이 있고 방학 때는 일자리를 놓는다. 일 년에 8개월을 일하고 4개월을 무직상태로 지내는 것이다.

이들의 열악한 상황은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처우에서도 드러난다. 우리학교 비전 임교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한 시간강사는 4대보험이나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에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일명 '강사법')은 일부 대학과 강사·교수 단체의 반발로 7년째 시행이 유예되고 있으며 내년도 장담하지 못한 상태다.

강사법의 주요 골자는 시간강사의 지위를 교원의 신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책임시수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전체평균	국립평균	사립평균	우리학교	최저임금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14년	5만2천원	6만9천원	4만7천원	5만1천원	5120원	1.3%
15년	5만3천원	7만원	4만9천원	5만1천원	5580원	0.7%
16년	5만5천원	7만1천원	4만9천원	5만1천원	6030원	1.3%
17년	5만8천원	7만2천원	5만2천원	5만1천원	6470원	0.7%
18년	-	-	-	5만1천원	7530원	-

(자료출처=대학알리미 공시)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올리는 것은 전체 비전임교원의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를 주당 9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강사의 처우 개선과 교원 지위 확보를 위해 10년째 청와대와 고려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대학강사노조 김영곤 대표는 "세계적으로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지 않는 나라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라며 "교원 지위 확보가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강사 임금이 동결된 이유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렵다는 실정도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배태섭 정책국장은 "노동조합을 결성해야만 임금 협상이 가능한데 한국의 대부분 시간강사들은 지위 특성상 좀처럼 모이기 힘들다"며 "시간강사 노동조합이 있는 대학들도 강의료가 산 편인데 없는 대학의 경우는 더욱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가입한 대학 중 성균관대 시간강

사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서울 내 주요 사립대학 9곳 중 6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캠퍼스 후마나티스칼리지(후마) 이영준 학장은 "직원에게는 직원노조가 있고 교수에게는 교수의회가 있지만 우리학교 시간강사에게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교원은 크게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뉘고 시간강사는 비전임교원에 속한다.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우리학교 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지난해 56.8%에서 61.1%로 늘었으며, 시간강사 강의 비율은 25.2%로 서울 내 주요 사립대학 9곳 중 7위로(1위 한국외국어대학교 43.4%, 9위 성균관대학교 0.3%) 비교적 적은 축에 속한다. 현재 우리학교 시간강사는 전체 교원 3,464명 중 1,039명(30%)이다. 후마가 290명(28%)으로

가장 많은 시간강사를 고용하고 있다. 예술·디자인대학 89명, 음악대학 81명이 뒤를 이었다.

우리학교 시간강사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8월 21일 국제캠퍼스(국제캠) 후마 객원교수 6명을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강등' 판정 ▲2015년 12월 24일 '교과과정 개편'을 이유로 해촉된 후 강의실 밖 수업을 했던 채효정 강사 ▲2016년 5월 12일 서울캠 '경희현재리포트'가 진행한 '후마나티스 장례식' 등 관련 문제제기와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후마가 있었다.

후마는 문제제기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20일에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후마나티스교육자협의회'가 발족됐지만 이후 세 명의 공동 대표 중 두 명이 사임했고 협의회의 대표 시간강사들은 운영위원을 사퇴했다. 이후에는 주로 종학교과교수회(교수회)가 객원교수와 더불어 시간강사 문제를 논의했다. 객원교수와 시간강사 신분안정화와 객원·시간강사의 임금인상을 주된 주장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논의 자체도 지체되는 가운데 이 논의에서도 시간강사는 주류가 되지 못하는 모양이다.

대학본부는 작년부터 객원교수 신분안정화를 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캠 후마 김영란 계장은 "신분안정화 계획은 실무적인 단계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다"며 "후마 학장과 본부 등 주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준 학장은 "시간강사 처우 문제도 논의 사항이지만 현재는 주로 객원교수의 신분안정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학교는 시간강사 임금 동결과 낮은 강사료에 공감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무처 측은 "본부는 비전임 교원들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정책적으로 진행시키려 했었다"면서도 "마지막 부총장 연석회의 때 보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당 강의료는 시간강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임교원인 객원교수나 겸임교수의 추가 강의료에도 해당된다"며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올리는 것은 전체 비전임교원의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가 더 필요한 것"이라며 지난해 보류된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논의는 "이달 말이나 6월 초순 총장실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 KHU '웃는 사자'를 찾습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원생을 찾습니다.

도전 정신을 갖고 관심 분야에 적합한 성취를 일궈 봄고 대내외적 위상을 높인 학생
사회기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감동을 주는 공감력을 형성한 학생
후마나티스칼리지 시민교과를 통해 사회 문제를 발견, 적극적 노력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낸 학생
실상성이 정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재화된 학생으로서 재능을 믿는 등 창작 실력을 한 학생
봉사 활동을 통한 학제적인 성과로 인류 평화와 나눔을 살피, 지역 공동사회 간성을 이바지 한 학생

봉사

봉사